

장흥 버섯산업연구,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10개국 700여명 연구자 참석해 총 338건 연구발표 이뤄

원목재배 표고버섯 면역력 향상물질 주목...참가자 높은 관심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오병찬)은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식품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산업체 등에서 10

개국 700여명의 연구자가 참석해 총 338건의 연구발표가 이뤄졌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장흥군의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소재로 한 R&D사업의 연구 성과 8건에 대해 포스터 발표를 했다.
포스터 발표는 중점 연구결과를 포

스터로 제작해 보고하는 학술대회의 발표형식 중의 하나이다.
그중 표고버섯에서 천연비타민을 추출하여 고부가가치 식·의약품의 원료화 기술을 확립한 '표고의 비타민 D2 추출수율 향상 및 유통 안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원목재배 표고버섯의 면역력 향상물질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장흥 표고버섯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R&D사업으로 확보한 원천기술은 적극적인 기술보급을 통해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 전개

귀성·역귀성 자제 당부·별초 대행 서비스 등 대책 마련

완도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군민과 향우가 함께 하는 '이동 멈춤 운동'을 펼쳐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휴가철과 연휴에 급증했던 터라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추석 명절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전파 고리를 차단하고자 발열체크소 운영, 관광객 입도 통제 등 군만의 방역 체계를 가동해 청정지역을 사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8월 27일 확진자가 발

생했다.
완도군 확진자는 서울을 방문, 외지인과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로 볼 때 타 지역 방문과 타인과의 접촉은 감염병 노출의 위험이 크다.
이에 완도군은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귀성 및 역귀성 자제를 당부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별초를 하러 오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 9월 11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대행료를 최대 40% 할인하는 '별초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완도군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 읍면에서 접수를

한 후 출항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완도군산림조합에 통보·추진하게 된다.
고향을 오지 못 하는 향우들을 위해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지원하거나 안부 동영상 촬영하여 자녀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도 실시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697세대에는 완도군행복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귀성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석 명절 선물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 등을 군민과 향우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자 각 마을 대표,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장 등 총 70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한다.
군은 14일부터 추석 명절 귀성·역귀성 자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각 마을 이장들도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
또한 서울과 부산, 광주, 인천, 안산, 목포, 제주 등 전국 향우회장의 공동 호소문 발표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고자 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이 최우선이다"며 "가족들을 만나지 못 해 아쉽겠지만 이번 추서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완도=김명수 기자



진도휴게소 발열 검사장 지속·운영

진도군, 코로나 19 대응 위해 민·관 긴급 회의 열어

진도군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회의를 개최해 진도대교 인근에 위치한 진도 휴게소 발열 검사장을 지속·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대응 상황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진도군 코로나 19 발생과 조치사항 ▲태풍 '하이선'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재개한 진도 휴게소 발열 검사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진도대교 발열 검사장은 9월 7일(월) 현재까지 66만여명의 발열 검사를 진행했으며, 979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보배섬 진도군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해 왔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슈퍼푸드 쌀귀리 가공식품 '재탄생'

쌀귀리 국수·라메·선식·즉석밥 등 가공식품 개발



강진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귀리 및 쌀귀리 국수 등 가공 식품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강진산 쌀귀리가 맛 좋은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한다.
군은 강진산 쌀귀리를 CI에 즉석밥 원료로 납품하는 한편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 계획에도 본격 박차를 가한다. 대표적 서민 음식 국수부터 아침식사 대용인 선식, 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쌀귀리 소비를 촉진시켜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로서 강진군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귀리국수 생산에 적극 나선다. 관내 식당에서는 쌀귀리 국수 생

면을 자체 생산하고 용역 수행을 통해 공장에서는 시판용 건면과 생면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슈퍼푸드 귀리의 영양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가장 우수한 국수를 만든다는 목표로 현재 식감과 맛을 높이기 위해 귀리 함량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다.
국수는 반죽 시 글루텐(곡류에 들어 있는 불용성단백질) 성분이 많이 첨가될수록 반죽의 찰기가 더해지고 식감이 배가된다. 그러나 귀리에는 글루텐 성분이 낮아 국수와 같은 가공식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볶음 쌀귀리 분말, 생쌀귀리 분말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편, 귀리는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2002년 미국의 뉴욕타임즈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된 바 있다.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심장병인 관상동맥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탈모 예방, 피부미용에 효과적이다.
강진군 10대 농식품이기도 한 쌀귀리는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갖추고 있는 강진군이 쌀귀리 생육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쌀귀리를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사랑상품권 인기 상종가

발행액 1150억원까지 확대...10% 할인 곧 소진될 듯



추석명절을 앞두고, 해남사랑상품권 판매가 인기 상종가를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150억원까지 확대한 가운데 현재까지

982억원이 판매되며 85.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국비 8%, 71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2차례 실시한 10% 할인판매도 해당금액 540억원 분량이 대부분 판매되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9월 4일 기준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를 통해 540억원 중 507억원이 판매되면서 잔여 물량은 약 33억원이 해당된다. 군은 해당 금액이 소진되는 다음 날부터 추석맞이 7%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